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건강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해외 선교 헌신의 주일 (모로코)

오늘 주일 예배(8.25)는 해외 선교 헌신의 주일로 지킵니다. 모로코의 복음화와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 국 : 2024년 8월 27일(화)

선교사 : 함베드로·안사랑 선교사 가정

3. 북한선교위원회 통일선교훈련원 제2기 비전트립 (태국)

기간 : 2024년 8월 25일(월) ~ 30일(금)

장소 : 태국성결교회 (신상태 목사 사무, 탈북루트)

4. 첫날맞이 월삭예배

다음 주 주일 예배(9.1)는 첫날맞이 감사예배로 오전 11시 예배 시에 함께 드립니다. (성찬예식 / 배종위원 : 이광근 안수집사)

5. 어린이 예배 장소(교육관 오후 1시)

교육관에 새 영상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관에서 어린이 예배를 교육관에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6. 아하브 코업(홈스쿨) 개강 예배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주관 : 아하브 코업 (박제연 집사)

7. 구역예배 가을학기 개강

9월 첫 주부터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9월 5일(목) 구역예배는 임명순 사모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8. 2024년 9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7.29 ~ 8.28)

9.13(금) 한태민 9.05(목) 정태현 9.21(토) 오지현 9.20(금) 김라라

행사계획

날짜	행사 내용
08/23	노아의 방주 전사회대전 엑스포
08/25	모로코 선교 헌신예배
25~30	북한선교위원회 비전 트립 (태국)
08/27	함베드로·안사랑 선교사 출국 아하브 코업 개강 예배
09/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2~07	담임목사 가정 휴가
09/08	평신도주일
09-14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09/15	추석 명절맞이 감사예배 (16~18)
09/22	순교자 기념주일
09/29	선교 헌신예배
10/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10/06	태산사 작정 주일(1)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 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예배	낮 1: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곡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 08/18 이광근 안수집사
- 08/25 임명자 집사
- 09/01 임명숙 집사
- 09/08 김혜숙 권사
- 09/15 정애자 권사
- 09/22 박제연 집사
- 09/29 이광근 안수집사



주사랑 7권 34호 | 2024년 8월 25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열네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해외 선교 헌신의 주일 함베드로·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출국

이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8~20)

이름 :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해외선교 헌신의 주일-모로코) 인도:집례자

※ 목 도 아시아 52:7, 9~11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9장 다 같 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서교독 No.111 선교주일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335장 다 같 이
(크고 놀라운 평가)

대표기도 임명자 집사
청년부 부장

성경봉독 요나 4:1~11 (구 1289) 임명자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한승훈 목사

봉헌찬송 찬 288장 다 같 이
(헌금위원 : 이재우 어린이)

※ 축 도 한승훈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통일선교 비전기도회

오후 1:00 경배 찬양 야비찬양단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예레미야 52:12-34 (구 1141)
말씀제목 빈 집 빈 땅 빈 마음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 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사무엘상 12:19-25 (구 426)
말씀제목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자

목 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가정예배 가정별 찬양
성경봉독 열왕기상 11:14-25 (구 531)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솔로몬의 대적자가 생긴 이유

금 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에베소서 6:10-20 (신 317)
말씀제목 영적 군사로 일하자

새 벽 기 도 회

새벽 5:30 매일성경 새벽본문
25일일 렘 52:12-34 빈 집 빈 땅 빈 마음
26일월 시 105:1-11 경배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27일화 시 105:12-23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나그네
28일수 시 105:24-45 양백귀의 하나님께 기도
29일목 시 106:1-12 신실한 하나님께 기도
30일금 시 106:13-31 하나님의 약속을 기할 때
31일토 시 106:32-48 신왕의 왕좌와 영혼의 땅
9/1일일 왕하 1:1-18 태와 마음을 겸하라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급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한성경 한승훈 임명순 한태민 한희락 / 이기를 이옥성 장사라
오동영 임명숙
주정헌금 : 박제연 문재효 이광근 오동영 임명숙 현수현진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이가를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한은총 한성경 한은총 무명(1)
감사헌금 : 김막동 이광근 박제연 전복순 한승훈 임명순 / 이옥성 정정재
구역헌금 : 박제연 임명순
후원헌금 : 세한교회
성 미 : 강민경 수원명성교회, 20kg)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장성정 목사(예배) 선한총성교회 성동연구소 대표 태교연구소 대표	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  이재우씨 가족 홍순경 성경적 가정 복음적 다음세대	해외선교(모로코)  함페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컴퍼니 파송 소리 단이	해외선교(타지키스탄)  이진은 선교사 안민주 선교사 타지키스탄 안마리 파송 평신도선교사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기성 총회 향훈 북한선교정책수립 북한선교교회개척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회
---	---	---	--	--

- ⑧ 유다의 딸 아들 에르가 다윗의 족보에서 빠지고, 믿음을 가졌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아들이 유다의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대상 2:3~4)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셸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의 딸 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 와 () 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 이더라
- ⑨ 다윗의 계보 중 갈렙의 자손들로 한 개인을 지칭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지역과 도시의 창시자들의 이름을 표현한 이들은? (대상 2:42~43)
여라므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 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 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 ⑩ 아베스 지역에 살던 종족은 원래 이스라엘의 정통 계보는 아니지만 사사기 4장 11절의 길르앗 아베스에서 이 종족의 하벨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내 아엘이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시스라를 죽임으로 유다지와 인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종족은? (대상 2:55)
아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 이더라
- ⑪ 다윗의 자녀들 중 헤브론에서 다스릴 때 태어난 여섯 아들은? (대상 3:1~4)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 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 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 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 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 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 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칠 년 육 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 다스렸으며
- ⑫ 다윗의 매우 이름다웠던 딸로 왜 암논과 압살롬이 왕 위에 오르지 못했는지 짐작하게 하는 여인의 이름은? (대상 3:9)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 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 ⑬ 유다의 계보에 소개되는 인물들 중 바벨론 포로기에서 벗어나 열악한 삶의 조건과 환경 앞에 체념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준 인물로 <더 넓은 땅>의 소원이 아닌 <악축의 유업에 대한 회복>과 <한난과 근심이 없는 삶>의 동경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갈망>을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었다 평가받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대상 4:9~10)
() 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 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던라 () 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25세에 유다의 18대 왕으로 등극하여 11년 동안 통치한 왕으로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으며 애굽의 패망한지 3년 만에 애굽에 대해 하다가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부대에게 패망한 왕은? (왕하 24:1)
()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 삼 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 ② 하나님께서 여호와김의 통치에 대해 예레미야를 통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렘 22:19)고 책망을 당한 이유는?(왕하 24:3-4)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 때문이며 또 그가 ()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 ③ 나이 8세에 왕위에 등극하였지만 3개월 통치를 끝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사람은?(왕하 24:12)
유다의 왕 ()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 ④ 주전 586년 남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마지막 왕은? (왕하 25:6~7)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랍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의 두 눈을 빼고 늦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 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멸망한 유다 왕조의 재건과 특별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족보의 기준을 나누면? (대상 1:1~4)
(),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아렛, 에녹, 므두셀라, 라멕, (),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 ⑥ 노아의 자손 중 가나안의 조상이 된 인물은?(대상 1:8)
()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⑦ 노아의 후손 중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버지로 구별되어 구속사의 기초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은?(대상 1:24~27)
셈, 아르박삿, 셸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훔, 데라, 아브람 곧 ()은 조상들이요

독일 나치의 지배하에 있었던 체코에서 유대인 아이들 669명을 구해낸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1909년 영국 런던에서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38년 나치가 통치한 체코에서 유대인 난민캠프를 목격한 것을 계기로 유대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탁 가정이 정해진 17세 미만 유대 어린이의 입국을 허가하는 영국의 정책”을 이용해, 아이들을 체코에서 빼내와 런던으로 데려오는 <어린이 수송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1939년 영국으로 돌아갔던 윈턴은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아이를 맡아줄 가정과 기금을 모집했습니다. 구출 작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슈타포의 위협, 영국 당국의 느린 일처리 등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홉 차례의 구출 작전으로 그가 살려낸 사람은 669명에 이릅니다. 윈턴의 선행은 1988년 윈턴 부인이 “구출 기록이 적힌 윈턴의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5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88년 영국 BBC 방송에서 윈턴을 위한 TV쇼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TV 진행자가 “당신이 구해낸 사진 속의 소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시죠?”라고 발언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중년의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포옹합니다. 촬영 내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가 나치로부터 구한 소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윈턴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TV 진행자가 “이 분외에도 윈턴 경에게 목숨을 빚진 분이 있다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방청객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마지막으로 구하려고 했던 250명의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 보냈을 때, 나치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고, 이 아이들이 모두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669명의 아이들을 구해 냈지만, 행방불명 되었던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50년 동안 평생 죄책감에 살아왔다고 합니다.

2003년 영국 정부는 그에게 <기사 작위>를 내렸고, 지난해 체코 정부는 최고 훈장 <하이트 라이언 훈장>을 수여했다. 2009년 구출 작전 70주년을 기리는 행사에서 윈턴은 노인이 된 ‘윈턴의 아이들’과 만났다. 그가 구해낸 669명의 아이들이, 어느덧 6,000여명이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녀로 2남 1녀가 있으며, 니콜라스 윈턴 경은 굉장히 장수하여 무려 106세까지 살았으며, 2015년 7월 1일 딸과 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의 메이든헤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소녀의 얼굴 TV쇼에서 만난 소녀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435장	다	같	이
대 표 기 도	박제연	집사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11:14~25 (구 531)	다	함	께
솔로몬에게 많은 대적자가 생기는 이유				
말 씬 인 도	임명순	사모	
합 심 기 도	다	같	이
헌 금 기 도 찬 420장	정애자	권사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일으키셨다는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솔로몬의 통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고난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닷은 다윗이 멸망시켰던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솔로몬 시대에 에돔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르손은 다메섹을 거점으로 하여 솔로몬 시대에 아람의 왕이 되면서 솔로몬의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정치적 반체제 인물이나 왕족을 망명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망명객들에게 주거 환경과 의식주의 문제를 제공하고, 또 결혼으로 후견인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후견인은 망명객들을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얼마간 지원해주고서 망명객들의 나라 변방으로 보내어 영토에서 가급적 많은 문제를 일으키도록 유도했습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적대국가의 힘이 약화되면, 그 후에 적대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사실도, 다윗을 통해 사울을 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 등의 가시와 같은 대적들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평화와 안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대적하거나 위협했던 세 사람 요압과 시므이와 아도니야를 제거해, 나라의 안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왕상 1~2장). 그런데 솔로몬의 배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 이방나라 여인과의 정략결혼을 하고, 또 그녀들이 들여온 우상을 솔로몬이 노년에 함께 숭배하게 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 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닷을 에돔의 왕으로, 르손을 아람의 왕으로, 여로보암을 분열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으로 만든 평가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알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공이 가장 치명적인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며, 가장 두려운 일은 세상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배교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징벌을 주셨는데, 먼저 솔로몬에게 주셨던 보호와 평화를 거두어가십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평화’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없애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솔로몬은 다시 대적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평화를 깨뜨리는 대적과 원수의 출현은, 자신을 성찰하도록 주신 영적 가시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들이 들여온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피곤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상황을 원망하기에 급급합니다.

둘째, 고난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손짓입니다. 가시처럼 찔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람의 왕 르손도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주했던 패잔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메섹의 왕으로 세우셔서 솔로몬의 골칫거리로 삼으십니다. 비록 하닷만큼 강력한 세력은 아니었지만,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솔로몬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 만큼 아무 걱정 없이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나라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 순간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때 솔로몬의 시작은 신실했지만, 노년엔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진 속물 군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솔로몬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잘나가는 사람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울무가 교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질 때,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해치는 독소입니다. 고난이 진실 하나를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깨워주는 거울입니다.

■ 결론

솔로몬 왕의 시대에도 태평성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닷과 르손 등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일평생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대적으로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이 들여온 우상을 숭배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 앞에서 자주 당황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주님을 기억하고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회,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더욱 의뢰하는 신앙을 갖추는 주사랑교회 성도가 됩시다.